



CNSU **충남도립대학교신문** NEWSPAPER



2018. August

발행처 충남도립대학교 신문사 | 발행인 총장 허재영 | 신문사 CEO 교수 곽영길 | 편집국장 박소정 | 발행일 2018년 8월 제46호 | 디자인 예담기획 Tel 041-333-4405

No. 46

‘지역과 함께하는 최고 공립대학으로의 도약’ 비전 선포 충남도립대학교 20주년, 성년의 해를 맞이하다.



지난 3월 19일 우리대학은 개교 20주년을 맞아 교내 해오름관 1층 강당에서 학생과 교직원, 외부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최고 공립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대학본부에서는 작년 1월부터 20주년 기념추진단을 발족시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특히 우리대학이 걸어온 20년간의 발자취를 동영상으로 구성하여 학내·외 참석자들이 함께 감상하는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의 뿌리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지역사회와 함께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이날 기념사에서 허재영 총장은 “학내 직원은 능동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학생들은 전공분야를 넘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가 되길”이라며 향후 추구해야 할 인재상을 제시하였으며,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여태까지는 양적인 충분한 성장을 이루어냈으니 지금부터는 질적으로 성숙한 성장을 위해 매진하시길”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에는 내·외빈이 본관 1층에 별도로 조성된 20주년 기념 홍보관을 방문하여 우리 대학의 역사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념식이 마무리되었다.

✦ 박소정 _ cnsu2017@cnsu.ac.kr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우리 대학,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 정원감축 권고 없이 국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

우리 대학이 지난 6월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는 각 대학이 제출한 발전계획과 산학협력, 학생 지원 등 6개 항목의 16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발표는 1단계 가(假)결과(잠정결과)이며, 이의신청 및 부정·비리 제재 여부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되면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국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우리 대학 본부에서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단을 구성하여 ‘CNSU VISION 2030’ 특성화·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대비 교육비 환원율을 152%까지 올렸으며, ▲대학 인력양성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산학협력 생태계 기반 마련 ▲취·창업 지원을 위한 학생이력관리시스템 활용 ▲진로·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하는바, 허재영 총장은 “우리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 준 결실”이라며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대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총장님과 교수님 및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 윤홍인 _ cnsu2017@cnsu.ac.kr



02 03

-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 제2의 기숙사 신축공사 중
- 보령머드축제 킬링 콘텐츠로 등극
- 도서관 충청권 1위 올라
- 도내 시·군과 손잡고 경쟁력 강화
- 산학협력으로 지역업체의 매출 12억 올렸다.

04

- 신입생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
- 충남도립대 입시 일정 등

05

- 심화학습실 어디까지 아세요?
- 신입생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문제’, 10명 중 4명은 ‘장래희망 공무원’
- 우리 대학 출신 공무원, 벌써 729명!
- 공무원 진출현황
- 하계 방학 중 취업 역량강화교육

06

- 컴퓨터공학과 충남학 역사탐방
- 자유와 권리 휴연 vs 비휴연
- 출입문 손잡이와 손목관절 통증들
- 전기전자과 ‘2018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 견학
- 노인요양원 방문 호텔조리제빵학과

07

- 평생교육원 내포외국인 언어장벽 ‘한국어교원 양성’
- 지방대 죽이는 대학 구조조정 안 된다
- 제10대 교수협의회 출범하다!
- 유권자의 날 특집 방송
- 스마트 토크쇼 경청

특집 01

황예슬 _ cnsu2017@cnsu.ac.kr/mihwa671312@naver.com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민선 7기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59세)가 62.3%의 득표율로 제38대 충남도지사로 새로이 당선되었다. 신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당선 후 “충남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 복지수도 충남’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지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충남도지사는 동시에 우리대학의 이사장이기도 한바, 지난 6월 22일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대학의 허재영 총장은 보고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5급 이상 사무관의 배치

둘째,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생회관 건립

셋째, 도내 간호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내 간호학과 신설

이에 양승조 도지사 당선인은 허재영 총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대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첫째, 도립대학교의 특성을 살려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달라.

둘째,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달라.

셋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한편 7월 11일 열린 제30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의 이영우 위원은 “도내 전문 해양수산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이 필요하다”며 “충남도립대학교에 해양수산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달라.”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양 승 조

제38대 충남도지사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 병/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의원 (충남 천안시 갑/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유 병 국

제11대 전반기 도의회의장

前 국회 입법정책 보좌관
前 충남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前 충남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제9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제10대 충청남도의회의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남도의원과 충청남도 내의 시장·군수의 프로필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시장·군수		도의원회				
천안시	구본영(現 천안시장)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11명	김형도(논산)	방한일(예산), 김석근(금산), 김복만(금산), 김명숙(청양), 김옥수(비례), 안장현(아산), 여운영(아산), 이선영(비례), 전익현(서천), 한옥동(천안)
공주시	김정섭(前 청와대비서관)		행정자치위원회	8명	이공휘(천안)	안장현(아산), 조길연(부여), 홍재표(태안), 오인환(논산), 이선영(비례), 이영우(보령), 한영신(천안)
보령시	김동일(現 보령시장)		문화복지위원회	8명	김연(천안)	김옥수(비례), 김기영(예산), 김한태(보령), 여운영(아산), 정병기(천안), 최훈(공주), 황영란(비례)
아산시	오세현(現 정책위부위원장)		농업경제환경위원회	8명	김득응(천안)	김복만(금산), 김명선(당진), 김기서(부여), 김명숙(청양), 김영권(아산), 방한일(예산), 양금봉(서천)
서산시	맹성오(前 제9·10대 도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8명	장승재(서산)	전익현(서천), 정광섭(태안), 김대영(계룡), 김형도(논산), 이계양(비례), 조승만(홍성), 지정근(천안)
논산시	황명선(現 논산시장)		교육위원회	9명	오인철(천안)	한옥동(천안), 김석근(금산), 이종화(홍성), 김동일(공주), 김영수(서산), 김은나(천안), 조철기(아산), 홍기후(당진)
계룡시	최홍목(現 계룡시장)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명	정광섭(태안)	조철기(아산), 최훈(공주), 한영신(천안), 한옥동(천안), 김한태(보령), 안장현(아산), 김영수(서산), 김대영(계룡), 김명선(당진), 김석근(금산), 김기서(부여), 전익현(서천), 김명숙(청양), 방한일(예산), 황영란(비례), 이선영(비례)
당진시	김홍장(現 당진시장)		윤리특별위원회	9명	김명선(당진)	이선영(비례), 김복만(금산), 김대영(계룡), 김은나(천안), 여운영(아산), 오인환(논산), 전익현(서천), 최훈(공주)
금산군	문정우(前 건국대 겸임교수)					
부여군	박정현(前 충남정무 부지사)					
서천군	노박래(現 서천군수)					
청양군	김돈곤(前 충청남도 지사치행정국장)					
홍성군	김석환(現 홍성군수)					
예산군	황선봉(現 예산군수)					
태안군	가세로(前 경찰대학 우대교수)					

> 보도 01

박소정 _ cnsu2017@cnsu.ac.kr

학교생활, 더욱 편해질 것입니다! 제2의 기숙사 신축공사 중

우리 학교의 도서관 뒷부분의 부지에 제2의 기숙사가 신축된다.

폭염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도서관 옆쪽으로 지난 3월부터 제2의 기숙사가 신축되고 있다. 신축 기숙사는 사업비 총 13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1월 준공하여 3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5424㎡)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50실(2인 1실)의 사생실 외에도 독서실과 취미실 등도 갖추어질 예정에 있어, 새로운 학습공간 및 복지·편의시설이 확보되고 교내 식당이나 도서관 등 다른 학교시설과의 연계활용이 용이해짐으로써 학습 및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들의 편의성을 매우 높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 기숙사는 기존의 기숙사에 비해 ▲ 깨끗하고 다양한 신식 시설 ▲ 도서관 등 교내 시설과의 연계성 향상 ▲ 민원 발생 등의 지역적 문제 해결 등의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 생활공간 내에서 개인적인 조리 불가 ▲ 교외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불리 ▲ 좁은 생활공간 등이 단점이다.

한편 대학 본부에서는 거의 10년 정도 쓰여 온 기존의 기숙사도 노후한 시설을 보수한 후 입사를 원하는 재학생에게 2인 1실 또는 3인 1실로 제공함으로써 기숙사 이용을 원하는 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 위스토리 01

노해밀 _ cnsu2017@cnsu.ac.kr

도서관 총청권 1위 올라

우리 대학의 도서관이 교육부가 실시한 2017년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 총청권 9개 공립·전문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지역 최고의 역량을 갖춘 도서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서관발전 및 사서 역량강화 △도서관 운영 △도서관 경영 단기적 성과(만족도·정보이용) △도서관 운영 장기적 성과(인력·예산)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는데, 평가결과 우리대학의 도서관은 학부생 1인당 연간 이용교육과 재학생 1인당 도서 수,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1인당 도서관 연면적, 도서관 발전 계획 및 추진실적 등 규모는 작지만 스마트하게 도서관을 운영해온 점도 평가에 반영돼 총 193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71개 2000명 미만 2·3년제 공립·전문대학 평균 점수(135.1점)를 크게 앞서는 수치이며, 전체 순위 중 상위 20%에 속하는 점수다. 특히, 총청권 9개 공립·전문대 중에는 우리 대학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지역 최고의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총청권 9개 공립·전문대 평균 점수는 123.3점이다. 허재영 총장은 “도서관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건물과 자료, 사람이다. 세 분야가 두루 좋은 평가를 얻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교직원과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학술정보종합센터로 도서관의 역량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 보도 02

윤홍인 _ cnsu2017@cnsu.ac.kr / hongin4965@hanmail.net

우리 대학이 새롭게 개최한 코스튬플레이 대회 보령머드축제 킬링 콘텐츠로 등극

우리 대학이 지난 7월 18일 보령 대천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새롭게 개최한 코스튬플레이 대회에 2천여 명의 관객이 몰리며 보령머드축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번 코스튬플레이 대회는 보령시가 주최하고 우리대학이 주관한 행사로, 그 동안 헤어뷰티과에서 18회에 걸쳐 추진해 온 세계머드뷰티경연대회에 코스튬플레이를 연계한 이색적 대회인데, 코스프레를 즐기기 위해 모인 2,000여명의 관람객은 35℃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예선과 본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등 큰 호응을 보였다. 행사는 일반 코스프레와 헤어 부분으로 각각 진행되었는데, 일반 코스프레에는 49명의 참가자가 오버워치 캐릭터인 다마와 lol(리그오브레전드) 캐릭터인 아리, 영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을 연출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빼앗았는데 대상은 인기 모바일 게임 ‘음양사’의 히로마사 캐릭터를 연출한 김다현 씨가 차지했고, 금상은 ‘스트리트파이터’의 춘리 캐릭터를 연출한 문소현 씨가 수상했다. 헤어 부분에는 70명의 참가자 경연을 벌이며 다양한 작품을 통해 헤어 뷰티 실력을 뽐냈는데, 경합 결과 헤어 부분 대상은 김동현 씨가 수상했고, 금상은 송예찬 씨가 차지했다.

우리 대학의 허재영 총장은 “19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기존 뷰티 경연 형식을 벗어나 문화산업의 장르를 다양화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충남도립대의 도전과 실험의 장”이라며 “또한, 이번 축제가 킬링 콘텐츠로 정착돼 우리나라 여름철 대표 행사인 보령머드축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위스토리 02

황예슬 _ cnsu2017@cnsu.ac.kr

도내 시·군과 손잡고 경쟁력 강화

우리 대학이 새롭게 출발한 민선 7기 도내 15개 시·군과 손잡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허재영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지난 7월 20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24일에는 아산시를 방문하는 등 오는 9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방문을 추진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과 대학 홍보 협의, 지역 연계 사업 추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방문을 통해 우리 대학이 210만 도민이 설립한 충남의 대표 대학임을 재확인하고, 15개 시·군과 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대학으로 성장해 간다는 목적이다. 보령시장과의 만남에서 허재영 총장은 “도내 15개 시장과 군수는 충남도립대의 이사와 같다”며 대학 홍보와 학생 취업, 지방공무원 임용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하고, 무엇보다 “충남도립대에 재학 중인 각 충남 지역 학생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면서 최근 보령시와 연계해 개최한 제19회 세계머드뷰티경연대회 코스튬플레이와 관련 행사 전담을 진단하는 등 협력 사업을 점검했다. 이에 김동일 보령시장은 “충남도립대는 성공한 대학”이라며 “보령의 자녀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다시 보령으로 돌아오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대학 홍보 및 취업 등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응답하였다.

> 위스토리 03

이다운 _ cnsu2017@cnsu.ac.kr

산학협력으로 지역업체의 매출 12억 올렸다.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지난 7월 18일 발표한 1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우리 대학이 추진한 풀뿌리기업 육성 사업에 참가한 지역 영농조합법인과 식품 분야업체 등 27개 지역 업체들의 총매출이 지난해 68억 9494만원에서 올해 81억 3086만원으로 12억원 이상 18% 증가했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A업체는 지난해 7119만원의 매출에서 2억 1000만원으로 195%가 증가했고, B업체는 4억 5932만원에서 9억 5000만원으로 100% 가량 높아졌다. B업체의 경우 수출도 지난 해 9425만원에서 4316만원으로 1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재영 총장은 “충청지역의 성장을 책임져야 할 공적 의무가 있는 만큼, 이번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본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풀뿌리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순천향대학교 및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업체에 전문가 자문과 명품화를 위한 판로개척,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 위스토리 04

자료제공 _ 기획교무처 입시담당 김 철 선생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

1. 수시모집일정

구 분	수시1차	수시2차	장 소
인터넷	'18.9.10(월) ~ 9.28(금)	'18.11.6(화) ~ 11.20(화)	http://www.uwayapply.com http://www.jinhakapply.com
창구/우편/팩스	'18.9.24(월) ~ 9.29(금)	'18.11.14(수) ~ 11.20(화)	본 대학 접수처에서 18시까지
면 접	'18.10.11(목)		
합격자발표	'18.11.1(목)	'18.12.13(목)	대학홈페이지 (www.cnsu.ac.kr)
예치금등록	'18.12.17(월) ~ 12.19(수)	'18.12.17(월) ~ 12.19(수)	농협은행 및 농협 전국지점
합격자등록	'19.2.11(월) ~ 2.13(수)	'19.2.11(월) ~ 2.13(수)	

※ 면접은 작업치료학과(정원외전형), 특수교육대상자(자치행정학과주간), 외국인전형대상자, 국제결혼이주자전형(자치행정학과야간)에 한함. (면접시간 및 장소는 학과별로 추후 공지)

2. 정시모집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인터넷접수	'18.12.29(토) ~ 1.11(금)	http://www.uwayapply.com http://www.jinhakapply.com
창구/우편/팩스접수	'19.1.7(월) ~ 1.11(금)	본 대학 접수처에서 18시까지
합격자발표	'19.2.1(금)	대학홈페이지 (www.cnsu.ac.kr)
합격자등록	'19.2.11(월) ~ 2.13(수)	농협은행 및 농협 전국지점

※ 창구/우편/Fax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는 등록(예치금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입학이 무효됨.
-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수시모집 지원(6회)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3. 모집계획인원

정원내 전형

구 분	계열(학과)	학제	입학 정원	정원내전형				정시			
				수시 1차		수시 2차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유공자	이주자			일반	특별
공학계	건설정보학과	2	34	25	6			1	1	1	
	★환경보건학과	3	30	26	2			1		1	
	소방안전관리학과	2	48	35	4	1		2	2	5	
	★전기전자공학과	3	30	20	2			7		1	
	★컴퓨터공학과	3	30	22	4			3		1	
	★건축인테리어학과	3	30	20	2			6	1	1	
인문사회계	자치행정학과	주간	2	49	31	5		6		7	
		야간	2	23			1		3		2
	★경찰행정학과	3	30	18	3			3	1	5	
	토지행정학과	2	40	27	3			5		5	
자연과학계	호텔조리제빵학과	2	40	33	3			3		1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	42	22	17			1	1		1
	★작업치료학과	3	30	24				4		2	
합 계			456	303	68	1	1	42	8	30	3

★3년제 학과

정원의 전형

구 분	계열(학과)	학제	수시 1차						
			대졸자	농어촌	특수 교육 대상자	기초 및 차상위 계층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외국인	
공학계	건설정보학과	2							1
	★환경보건학과	3	1	1		1	1	1	
	소방안전관리학과	2		2		1		1	
	★전기전자공학과	3	1	1		1	1	1	
	★컴퓨터공학과	3	1	1		1		1	
	★건축인테리어학과	3	1	2		1	1	1	
인문사회계	자치행정학과	주간		2	1	1	1	1	
		야간		1					
	★경찰행정학과	3		2		1		1	
	토지행정학과	2						1	
자연과학계	호텔조리제빵학과	2	1	1		1	1	1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	1	1		1	1	2	
	★작업치료학과	3		1		1		1	
합 계			6	15	1	10	6	13	

※ 각 학과별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등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스토리 05

자료제공 _ 기획교무처 입시담당 김 철 선생

충남도립대 입시 일정 등

9월 10일부터 총 424명 수시선발. 학생부 위주 교과 80% · 출석20%

충청남도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충남 지역 내 유일한 도립대학인 우리대학은 공학계열 6개 학과(건설정보학과, 환경보건학과(3년제),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기전자공학과(3년제), 컴퓨터공학과(3년제), 건축인테리어학과(3년제))와 인문사회계열 3개 학과(자치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3년제), 토지행정학과), 자연과학계열 3개 학과(호텔조리제빵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작업치료학과(3년제))의 총 12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행정학과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자치행정학과(야간) 과정을 통해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다.

우리 대학은 인문사회계열은 106만5500원, 공학 및 자연과학계열은 129만2500원 등의 저렴한 등록금과 재학생 70%에 달하는 장학금 수혜비율로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숙사 입실을 원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아파트형 기숙사를 100% 제공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2019학년도 전체 신입생 모집정원은 총 456명으로,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375명, 특별전형 79명, 독자기준 2명으로 모두 정원 내 모집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전형 10명, 농어촌전형 15명,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전형 6명, 전문대 이상 졸업자전형 6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1명, 외국인전형 13명 등은 정원 외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424명을 오는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우리 대학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이 시기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교과성적 80%와 출석 2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 내신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로 나뉘어 반영된다. 반영교과목은 석차등급이 표시된 전 교과목으로 성취평가지 교과목도 석차등급 환산을 통해 반영한다.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지원자(환경보건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등)는 이전에 다녔던 대학의 성적을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 지원 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 개 학과에 한 개 전형만 지원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www.cnsu.ac.kr)의 모집요강과 전년도 입시결과를 참고하면 된다.

> 위스타리 06

◆ 윤홍인 _ cnsu2017@cnsu.ac.kr

심화학습실 어디까지 아세요?

우리학교에서는 공채지원 확대를 위한 심화학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진출자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준비생을 대상으로 별도로 마련된 학습공간을 운영하는데 자기 주도적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학업 의지 향상과 학업능력 제고로 지역의 유능한 맞춤형 특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충남도립대학교 심화학습실 운영 기간

- [제1회] 2018. 3. 26. ~ 6. 22.
- [제2회] 2018. 6. 25. ~ 9. 20.
- [제3회] 2018. 9. 21. ~ 12. 14.
- [제4회] 2018. 12. 17. ~ 2019. 2. 28.

입실시간 19:00~23:00 ⇨ 19:30, 22:30에 출석

연간 선발계획

- 1학년 : 입실고사 1회(3월), 모의고사 3회(6, 9, 12월)
- 2학년 : 모의고사 2회(3월, 6월)
- 작업치료과 : 1학년 입실고사 1회 및 모의고사 3회, 2학년 모의고사 4회, 3학년 모의고사 2회

선발방법

- 시험과목 : 공통과목 및 직렬별 전공과목 시행 (내부 및 외부출제)
- 선발인원 : 입실고사 및 모의고사 공통(3과목) 성적순 56명 이내 (심화학습실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 인원 배정된 학과 제외)

2018학년도 모의고사 일정

- [제1회] 2018. 3. 12.(월) 19:00~
- [제2회] 2018. 6. 7.(목) 19:00~
- [제3회] 2018. 9. 6.(목) 19:00~
- [제4회] 2018. 12. 6.(목) 19:00~



> 위스타리 07

◆ 이다은 _ cnsu2017@cnsu.ac.kr

신입생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문제', 10명 중 4명은 '장래희망 공무원'

우리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상담센터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지난 7월 16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했으며, 설문에 응한 학생 수는 505명이었다. 우리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의 진학과정 및 진로선택, 대학생활 적응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신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신입생들이 대학을 통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사항으로는 '취업문제'(81.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학금'(7.2%)과 '학업관련 사항'(7.0%)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이었다. '장래희망 직업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학생 10명 중 4명(42.6%)이 '공무원'을 선택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38.2%의 응답률보다 높은 수치로, 수년째 '공무원'이 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과 관련해서는 수업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60.4%로 나타났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원하는 학생이 28.5%로 뒤를 이었다. 개인상담 요청 주제로는 '적성검사가 25.4%로 가장 높았으며, '성격검사가 19.8%로 뒤를 잇는 등 전공과 개인성향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허재영 총장은 "수업이 어렵다면 학생 눈높이로 수업 방식을 맞추는 방법을 고민하고, 학생 취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지도 방향을 설정하고, 교수들의 교육역량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위스타리 09

◆ 채민석 _ cnsu2017@cnsu.ac.kr

공무원 진출현황

2018. 8. 현재

연도별	임용현황(명)		
	소계	공개경쟁	경력경쟁
계	729	385	344
2018	22	22	진행중
2017	42	32	10
2016	42	32	10
2015	62	49	13
2014	44	32	12
2013	59	46	13
2012	39	25	14
2011	30	15	15
2010	28	15	13
2009	43	19	24
2008	45	19	26
2007	42	18	24
2006	45	18	27
2005	43	16	27
2004	31	14	17
2003	20	5	15
2002	18	5	13
2001	23	3	20
2000	28	0	28
1999	23	0	23

> 위스타리 08

◆ 채민석 _ cnsu2017@cnsu.ac.kr

우리 대학 출신 공무원, 벌써 729명!

우리 대학은 공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꿈의 대학이자 충남 최고의 공무원 양성소로 그 위상과 면모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 1998년 개교 이래 지난 2008년 개교 10주년까지 총 273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으며, 이후 지난 2017년까지의 9년 동안은 400여명을 훌쩍 넘는 숫자가 우리 대학을 통해 공직으로 진출하는 등 개교 이후 20년 간 공직에 진출한 우리학교 재학·졸업생은 모두 729명이 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이전까지 517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44명, 2015년 62명, 2016년 42명, 2017년 42명, 2018년 7월 현재 22명 등 4년 연속 40명 이상을 배출에 성공했으며 특히 지역인재 9급 국가공무원의 경우 2010년 첫 배출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모두 11명의 합격자를 냈다.

이처럼 우리 대학이 공무원 양성 우수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데는 2008년부터 운영 중인 '맞춤형 공채 지원 프로그램'이 뒷받침 됐다.

이 프로그램은 공직 희망 재학생 56명을 선발하여 심화 학습실을 운영하고, 공직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분야별 자체 모의고사 및 맞춤형 집중 강의, 공채 시험 대비 동·하계 특강 및 기술직렬 특별 대비반 운영,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와 인사혁신처 방문, 공직박람회 관람, 도의회 방청 등 공직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도 병행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성취도 향상 장학금 지급, 직렬별 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학습 분위기를 높이는 등 특별한 관리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학금 규모도 뒷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커졌다. 지난 2008년 2억여 원에 머물렀던 장학금은 10년이 지나면서 30억여 원으로 늘었다. 외연도 넓어졌다. 지난 2016년 학교 명칭을 '청양대'에서 '충남도립대로 전환하고 공간적 범위를 더 넓혔다.

해외 우수 대학과의 연결 통로도 마련되며 글로벌 취업의 기회도 커졌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3년 캐나다 밴쿠버 스프루트 쇼 컬리지(Sprott Saw College)와 몬트리올 라셀 컬리지(LaSalle College)와 협약을 체결, 첫 복수학위제를 도입했다.

또 2016년에는 캐나다 애쉬튼 대학교 그레이스톤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원 양성과 병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오고 있다.

> 위스타리 10

◆ 장주성 _ cnsu2017@cnsu.ac.kr

하계 방학 중 취업 역량강화교육

우리 대학은 여름 방학을 활용해 각 학과별로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정보과 등 6개 학과의 73명의 학생들은 방학기간 41개 업체를 방문하는 하계 현장실습을 마련해 8월 26일까지 업체를 방문한다.

또한 각 학과는 현장실습과 자격증 특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건설정보학과와 소방안전관리학과는 7월 중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현장실습을 마련하고 순회지도에 나섰는데, 특히 소방안전관리학과는 자격증 취득 독려와 전임교수 산업체 방문 등을 병행해 양질의 취업처 발굴에 나서고 있다.

전기전자공학과와 토지행정학과 등은 산업기사 필기시험과 정보처리기사 시험 대비 자격증특강 등을 펼치며 자격증 취득에 집중할 계획이다.

허재영 총장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충남도민이 맡기신 귀한 자녀들인 만큼,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해 지도에 나서고 있다"며 "방학을 반납한 학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위스토리 11

배지혜 _ cnsu2017@cnsu.ac.kr

컴퓨터정보과 충남학 역사탐방

우리 대학 컴퓨터정보과에서는 지난 3월 27일 충청남도(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충남학 거점대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충남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충남지역 항일 독립운동'을 주제로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한 것에 이어 5월 1일 서산·예산 일원에서 2차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2차 현장답사는 '백제의 미소에서 추사고택까지'라는 주제로 국보 제84호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과 '보원사지', 예산의 '추사고택'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했고, '충남지역 항일 독립운동' 역사 탐방으로 학생들은 "우리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뿌듯했고, 그런 순국선열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기들과 역사탐방을 통해 충남지역도 돌아보고, 독립기념관을 둘러보면 서여러 희생을 통해 얻게 된 광복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라며 독립운동을 통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허재영 총장은 '백제의 미소를 비롯한 선조들의 우수한 문화재를 직접 관람하며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IT 기술을 통해 문화재를 복원한 체험교육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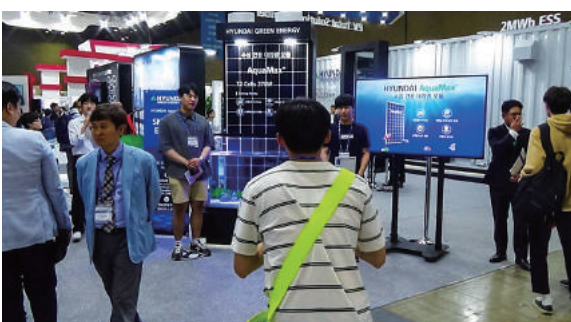
> 위스토리 14

채민석 _ cnsu2017@cnsu.ac.kr

전기전자과 '2018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 견학

지난 6월 15일 박민호 교수와 전기전자과 학생 30명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6월 14일부터 16까지 열리는 '2018 세계태양에너지 엑스포'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2018 세계태양에너지 엑스포'는 국내 최대의 태양광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의 태양광 시장 변화 추세에 맞춘 실질적 바이어 상담과 성과를 창출하는 자리로, 이에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충남 창조경제 혁신 센터는 '에너지 신산업화'라는 최첨단 대체 에너지 생산의 허브역할을 자처하며 특화 분야인 태양광 융복합 산업 유망 창업·중소벤처기업 8개사와 공동으로 구성된 충남센터관을 통해 "2018년 태양광 융복합 창의혁신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했다. 이 외에도 차세대 마이크로그리드 응용 제품, 수상태양광 녹조제거 겸 수열발전기,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재난안전 CCTV 영상관제 시스템, 태양광 보안방재 시스템, 태양광 트랙커 등 참여업체에서 개발한 다양한 태양광 응용제품들을 선보였다.



> 위스토리 12

배지혜 _ cnsu2017@cnsu.ac.kr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흡연 vs 비흡연

학생에서 성인이 됨과 동시에 대학생들은 음주와 흡연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그만큼 음주자와 금주자,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지켜야 할 규칙과 선은 엄밀히 존재한다.

우선 우리학교 캠퍼스 내의 지정된 흡연 시설은 예지관 주민교육세미나실 야외옥상, 창의관 건물앞 정자, 창의관 옥상 등등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본인들의 편의에 의하여 학교 출입 시에 드나드는 금연구역인 각 건물의 입구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 학생들은 학교 내 출입 시 얼굴을 찌푸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흡연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야 하지만, 간접흡연을 통한 비흡연자의 자유의지와는 상반되는 피해로 인해 흡연자와 서로 상반되는 입장으로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대학교(안남 K대학교)의 예를 들자면 그곳은 캠퍼스 안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도 부스를 설치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배려인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양쪽 간의 불만 없는 공존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되도록 흡연하는 동기들 친구들 더 가서 교수진들까지 금연을 권유해 보는 건 어떨까. 아름다운 나이, 또 아름다운 캠퍼스 내 흡연의 공기로 인한 얼굴 찌푸림과 건강에 적신호가 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충남도립대학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



> 위스토리 15

노해밀 _ cnsu2017@cnsu.ac.kr

청양군 노인요양원 방문한 호텔관광외식과

지난 5월 11일 우리 대학의 호텔관광외식과 학생들이 청양군 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직접 만든 빵 100여개를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자원봉사는 2016년 청양군 노인요양원과 자원봉사활동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추진되었다.

호텔관광외식과의 김나희 교수는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맛있는 빵을 정성껏 만들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순회 방문하면서 빵을 통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자원봉사에 참여한 호텔관광외식과 학생은 "강의 시간에 배운 제빵 기술을 좋은 마음으로 좋은 곳에 활용할 수 있어서 기쁘고, 누군가를 위해 빵을 만들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 위스토리 13

이다은 _ cnsu2017@cnsu.ac.kr

출입문 손잡이와 손목관절 통증들

손목 관절 통증들에는 손목 관절 건초염, 엄지 뿌리 관절염,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있다.

손목 관절 건초염란 손을 움직이는 힘줄에 무리가 가서 생긴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뜻하는데, 손잡이를 돌려서 계속 문을 열 경우 이런 질환을 쉽게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엄지 뿌리 관절염이란 퇴행성관절염으로 엄지손가락 뿌리의 관절에 생긴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하며,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을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중 최근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손목터널 증후군이라 한다.

문제는 손목 통증을 원인을 제때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큰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마비증상이 생긴다. 손목이 꺾이면 정중신경이 자극이 되는데 계속 손목이 꺾이면 후유증이 생긴다. 근력이 약화되고 물건을 잘 떨어뜨리거나 힘이 약화된거나 그런 걸 느끼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목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손목 관절 통증들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의 출입문들이 자동으로 누르면 열리거나 손목관절을 최소화하는 손잡이들이 많이 개발되고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학생들은 보통 하루 반나절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하는데 언제쯤 우리 대학은 출입문의 손잡이를 교체할까?



> 위스토리 16

이상경 _ cnsu2017@cnsu.ac.kr

걱정없는 학교생활 도와드려요. 학생 70% 장학금 수혜, 학비 부담 경감

우리학교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으로서, 인문사회 계열은 106만 5500원, 공학 및 자연과학계열은 129만 2500원 등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편에 속한다. 여기에 신입생 및 재학생 70%에 달하는 장학금 수혜비율로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등록금을 전혀 지부담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에다가 또한 기타 생활비관련 장학금도 다수 배정되어 걱정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 중 하나라고 평가된다.

거기다가 기숙사도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주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식사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 위스토리 17

◆ 노해밀 _ cnsu2017@cnsu.ac.kr

평생교육원 내포외국인 언어장벽 ‘한국어교원 양성’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홍성군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인숙·이하 홍성다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어교원 양성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한국어교원 양성을 통해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홍성다문화센터에 따르면 내포신도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400여명과 중도입국자녀(외국인근로자 자녀·고려인 등) 28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실습생들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이 요구하는 이론 과정 100시간과 현장실습 과정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대학의 평생교육원은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전반을 운영하고 홍성다문화센터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참관수업을 추진하는 등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되도록 하고 한국어교원 실습생의 희망 진출 분야와 진로를 고려해 배치하는 등 한국어교원 양성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공동 추진한다. 한국어교원 이론과 현장실습 과정을 모두 이수한 실습생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을 최종합격하면 교원 활동을 할 수 있다.

허재영 총장은 "외국인 주민이 날로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홍성다문화센터와 손잡고 한국어교원을 양성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는 소통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 위스토리 09

◆ 교수협의회 제공

제10대 교수협의회 출범하다!



양초산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교수

충남도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는 2018년 5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신임회장으로 양초산 교수(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를 선출되었다. 새로 선임된 임원으로 부회장은 류지원 교수(헤어뷰티과), 총무로는 양노열 교수(작업치료과)가 향후 2년간 교수협의회 의 임원으로써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선출된 양초산 신임회장은 신임인사를 통해 "1997년 개교 이래 올해 뜻깊은 20주년을 맞이한 우리대학은 도립대학의 설립취지에 맞게 현재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하였다. 향후에도 지금보다 더욱 크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교수협의회 설립 목적에서처럼 대학운영의 자율화 추구하고 회원의 권익 신장에 더욱 힘쓰며, 대학이념의 구현과 우리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제10대 교수협의회에서는 우선적으로 곧 정년을 앞두고 있는 1기, 2기 교수들의 명예교수제 추진을 대학의 해당부처와 적극 상의할 계획이며,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교수협의회 규정 개정을 통해 교수들의 권익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새로운 임원진들과 함께 교수협의회를 이끌 힘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 참여공간 01

◆ 강제일 _ 중도일보 차장

지방대 죽이는 대학 구조조정 안 된다



강제일
중도일보 차장

얼마 전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심의 결과가 지역 대학가를 뒤흔들고 있다. 교육부는 일반대 187곳, 전문대 136곳 등 모두 323곳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전국에서 상위 64%로 평가된 207곳(일반대 120곳, 전문대 87곳)을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 반면, 이에 포함되지 못한 전국 86개(일반대 40곳, 전문대 46곳) 대학에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은 이 같은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낙제평가'를 받은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율개선대학은 정부로부터 정원감축 압박을 받지 않고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또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며, 모든 국책사업에 제약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도 모두 받게 된다.

정부의 시퍼런 대학 구조조정 칼날의 예봉을 일단 피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사정이 다르다. 이른바 '부실 대학' 꼬리표를 달게 될 우려가 커진다. 이들 대학은 향후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분류돼 학생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재정지원과 국책사업,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8월말 1·2단계 평가 결과를 합산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 발표할 계획이다. 이른바 '부실 대학'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이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대학구조조정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교육 여건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 박근영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영향으로 지난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고교를 졸업하기 시작하는 올해 이후를 고비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대학 신입생 정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4년제 대학 중에서도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속속 등장하면서 교육당국이 부실대학을 솟아내는 등의 구조조정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3년간 전국 일반대에서 1만 3000여명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대학교육연구소 분석결과도 있다.

문제는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 할수록 이에 대한 피해가 지방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3년과 2018년 대학별 입학 정원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전국의 대입 정원을 5만6800여명 줄였다. 이 가운데 지방 4년제 및 전문대가 4만 2355명을 줄여 전체의 75% 가량을 감내한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이번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일부 평가방식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 정원감축 대상 대학을 정하는 잣대에서 여전히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방이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이 피해가 고스란히 지방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결과 이번 평가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잠재적 후보군인 2단계진단 대상(일반대)에 오른 40곳 가운데 35곳이 지방대이며 수도권 대학은 5곳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방대는 비단 고등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지자체와 지역특화 산업육성 전략을 짜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고용창출 전진기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대다. 또 외국대학 및 기관과 자매결연을 통해 한류 문화전파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지방대 주변에 형성된 상권에선 교직원과 학생들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이 적지 않다. 가정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도 지방대가 수행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에는 10월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 발표예정 등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이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대와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대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 위스토리 17

◆ 이상경 _ cnsu2017@cnsu.ac.kr / glseeho@naver.com

유권자의 날 특집 방송 스마트 토크쇼 경청



지난 5월 3일에 우리학교의 자치행정과, 경찰행정과, 헤어뷰티과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함께 [스마트 토크쇼 경청]의 방청을 위해 야외수업의 일환으로 대전 MBC공개홀에 방문하였다.

5월 10일 방영된 '스마트 토크쇼 경청'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정보 획득 및 투표참여 독려를 주제로 유권자의 날(5월 10일)의 의미와 여러 나라의 참정권 획득과정,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선거 등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패널로 참여하여 지방선거에 관한 상식, 올바른 투표상식 등에 대한 퀴즈를 푸는 시간도 가지었으며, 또한 "나에게 선거권" 이다. 라는 대한 질문에는 '어른으로서 시작이다.' '권리자 의무이다.' 라는 답으로 내놓는 등 앓된 얼굴로 깊은 생각의 드러나는 대답으로 게스트를 놀라게 하였다.

이날 게스트로 참여한 이수진리포터는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방청객들의 참여와 웃음을 이끌어내었고 배재대학교 교수인 최호택은 "최근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가 늘어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다."며 소감을 말했다.

또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인 남택용은 "올해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는 유권자의 날이다."라며 이번 유권자의 날에 대해 의의를 두었고 "지방선거는 6월 13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많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부탁하며 마무리되었다.

참여공간 02

갈등해결의 1순위 모멘텀, 적극적 “절충(折衷)”

사바티어(P. A. Sabatier)는 높은 수준의 정책옹호연합 간 갈등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에 의한 중재는 필수적이라는 말을 했다. 이는 이해당사자 간 지나친 갈등은 절충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국 중 3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북 간, 국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의 보수와 진보 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갈등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가고 있고, 국가경쟁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 사바티어가 시사하는 바는 의미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즉, 이분법적인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한 단계씩 양보하며 정책산출물을 도출하는 것은 불안하지만 대립하는 둘 이상의 욕구를 하나의 행동으로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성이 높아지는 절충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의 비양립성에 있어서 이분법적 시각을 지양해야 한다. 즉,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할 때, 적정수준의 갈등을 넘는다는 점에서 중간적 절충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주의자와 선별적 복지주의자 간 이분법적인 갈등국면에서 클라이언트를 하위 70~80%의 범위로 복지대상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양승일(자치행정학과 교수)
대학일자리센터장

둘째, 제한된 자원경쟁에 있어서 양보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 즉,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간 높은 수준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주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주의로, 케이스별 성격에 맞게 맞춤형으로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셋째, 상호의존성에 있어서 정책중개자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즉, 의견이 다른 둘 이상의 조직체가 공동으로 정책결정을 추진할 때, 높은 수준의 갈등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절충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중개자를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전술한 사항 등을 필수조건으로 절충이 관례화된다면, 정보통신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정착될 수 있는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적정수준의 갈등은 오히려 순기능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은 견제와 균형, 조직혁신, 가치창조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수준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언급한 사항을 근거로 절충을 시도해야만 지나친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중심축에 위치하게 하는 국가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이 100% 옳을 수도 없지만, 설령 옳다고 해도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적극적 절충으로의 모멘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여공간 03

이혜진 인테리어패션디자이너

여성의 불안과 공포를 조금 더 이해해야…….

우리나라의 성평등은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 글썽. 20년 전, 10년 전 보아야 발전했겠지. 무엇보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사상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니, 그럼에도 그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고.

얼마 전 발생했던 '홍대누드남' 사건. 여성들은 분노했다. 우리나라의 몰래카메라 피해자의 95%가 넘는 비율은 모두 여성이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의 처벌은 어땠는가? 그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은 수많은 야동사이트에 유포되고 그들 스스로 경찰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접을 동안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무엇인가? 의사의 꿈이 좌절된다고 집행유예, 초범이라 집행유예, 정신미약이라 집행유예.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달랐다. 피해자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뀐 것뿐인데 경찰의 수사속도는 말도 안 되게 빨라졌다. 대표적으로, 여성들의 몰카가 유포되던 '소라넷'은 6205일(17년)이 지나서야 폐쇄되었지만 이번 사건은 7일 만에 유포자 검거를 하였다.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몰카는 그 학교의 이름과 지역이 야동사이트 검색순위 1위를 했지만 이번 홍대누드남 사건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를 하였다. 몰카 95%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는 늘 일어나는 해프닝 마냥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남성일 때는 가해자가 포토라인에 섰다. 대체 왜 피해자가 여성일 때 경찰들은 귀와 눈을 막아버렸는가.

그들은 '모든 남성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들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모든 남성들이 범죄자는 아니다. 허나 가해자 중 높은 비율이 남성이라는 사실은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 통계로도 너무나 확실히 나와 있는 사실인데 대체 어떻게 마냥 마음 놓고 살란 말인가. 여성으로 태어나 느껴야 하는 불안과 공포를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우리 여성들을 질타할 때 꼭 쓰는 '모든 남성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 왜 여성의 고통과 걱정을 과대망상증으로 치부하는가.

2017년, 우리나라는 4월에 한번 꼴로 남자친구 혹은 배우자에게 여성이 살해당한다. 그것도 경찰이 별도 집계를 하지 않아 언론으로 보도된 건들만 합한 수치이다. 이 수치가 낮설고 믿기지

않겠지. 나도 그랬으니, 그만큼 우리 여성의 죽음에 관심이 적다.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이 하도 빈번하니 관심이 떨어질 것일까. 남성들에게 이 수치는 단순 놀라움일 수도 있으나 여성들에게는 현실이다. 뚜렷한 현실이며 피부로 느껴지는 공포다.

우리 2018년을 살고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을 치고 페미니즘 도서를 읽었다고 말하는, 페미니즘 핸드폰케이스를 들고 다니는 여자아이들은 메갈 소리를 들었다. (와중에 똑같은 도서를 읽은 남자방송인, 남자언론인, 대통령에게는 그 누구도 그들에게 메갈이라 칭하지 않는다.) 그들은 페미니스트가 무슨 사이비종교에 미친 사람들 마냥 배척한다. 허나 그들은 간과한다. 과거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싸운 그들, 페미니스트다. 우리가 위인전을 통해 수십 번 읽은 헬렌 켈러 역시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싸운 페미니스트다. 현대에 누가 과거의 그들(페미니스트)에게 손가락질 하는가? 허나 역설적이게도 요즘 사람들은 페미니즘의 '폐'지만 들어도 흠칫 놀란다. 과거에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던 그들이라고 좋은 소리 들으며 싸웠을까? 아니, 가부장제 사회는 그들을 '가정을 망치는 여자'로 표현하고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조롱했다. 현재와 무엇이 다른가? 가부장제 사회의 수법은 변하지 않았다. 자신의 목소릴 내는 여성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로 표현해 조롱한다. 허나 어쩌지, 이제 그마저도 타격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들에게 예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곧 그들에게 소비된다는 뜻이고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소비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이 주문처럼 외워대는 '되지', '쿵방이'에 위축되지 말라. 당신이 정말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욱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하며 당신의 지성을 칭찬한다. 그러므로 용기 있고 똑똑한 여자들아, 그들이 페미니스트들에게 씌우는 프레임을 보기 좋게 비웃어주자. 그리고 싸우자. 또한 이기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성들의 이해와 동조(하는 척하는 맨스플레인)가 아니라 우리 여성들 스스로가 깨어나 연대하는 것이다.

CNSUBC 충남도립대학교 신문 · 방송활동

안녕하세요. 충남도립대학교 학우여러분, 신문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여러분!

여러분께 이 글을 전해드리는 저는 현재 교내 신문방송사의 신문부 편집국장 자치행정학과 박소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올해 새롭게 구성된 신문방송사의 소개 및 운영과 신문 활용에 관련하여 소개해 드리고자합니다. 현재 신문방송사는 CEO 광영길 교수님 아래 신문부 박소정(자치행정학과) 편집국장 외 9명의 기자, 방송부 편도성 방송국장(전기전자과) 외 9명의 아나운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 호로 46호를 발간하게 된 신문부는 교내의 큰 행사나 학생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언론·정보 등을 정확하고 다양한 기사로 만들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리학교의 신문은 매학기 1회씩 제작되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교내 곳곳의 신문배치대 외에도 각 과에 개별적으로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문배치대는 본관 1층, 도서관 입구, 교내편의점 입구, 학생식당 입구, 해오름관입구, 예지원과 진리관 사이 통로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부는 교내의 음악방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은 [오전방송 : 8:30~8:50][오후방송 : 18:20~18:50]으로 정해져있으며, 교내 게시판에 붙은 신청곡리스트에 원하시는 곡을 작성 하시면 언제든지 선별하여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페이스북에 '충남도립대학교 방송국'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방송국의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여 늘 성장해가는 충남도립대학교 신문방송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